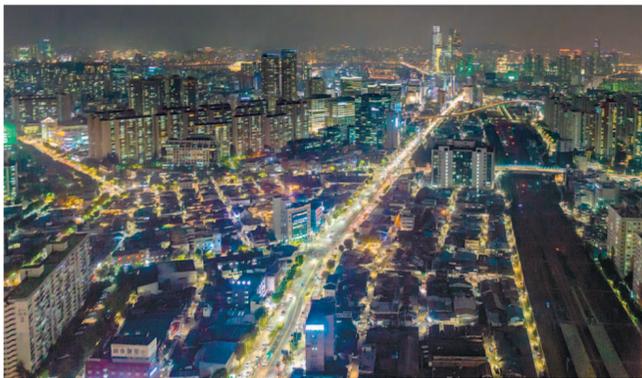


夜好! 1250원으로 즐기는 '빛의 천국'

(지하철 요금)

동대문 성곽공원-DDP 이색 조화 보타닉 공원, LED 조명 휘황찬란 디큐브시티, 야경 감상 숨은 명소



서울에는 접근성 좋은 가을 저녁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야경명소들이 많다.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 41층 호텔 로비에서 내려다보는 구로와 여의도 지역의 야경이 멋진 디큐브시티, 밤이 되면 256색의 LED 조명이 불을 밝혀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보타닉 공원 온실, 동대문 성곽공원의 야경 나들이길에 함께 방문하면 좋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예전보다 너무 짝아졌다', '계절감을 못 느끼겠다' 푸념을 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다. 확연하게 높아 보이는 파란 하늘, 시나브로 잎색깔이 변해가는 나무들이 무더웠던 여름의 추억과 다가올 겨울의 예감 사이에서 확연한 존재감을 자랑한다. 가을하면 푸르고 높은 하늘이 상상이지만, 투명해진 공기 덕분에 밤 풍경마저 낭만하다. 때론 화려하고, 때론 따스한 낭만이 느껴지는 도심 야경은 가을에 매력적이다. 서울관광재단은 접근성 좋고 낮에 함께 즐길 주변 명소까지 있는 '서울야경 명소' 5곳을 추천했다.

●도심 속 성곽 투어, 동대문 성곽공원

홍인지문부터 성벽을 따라 낙산공원으로 이어지는 한양 도성길-낙산 코스 출발점에 있다. 요즘 수크림(역새과 여러살이 풀)이 동산을 가득 메워 바람에 일렁이면 서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긴다. 홍인지문 조명과 성곽을 비추는 경관조명이 들어오면 야경 명소로서의 매력이 한껏 드러난다. 은은한 조명의 성벽과 도심 불빛, 그리고 마치 우주선 같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모습이 참 묘하게 어우러진다. (지하철 1호선 또는 4호선, 동대문역 1번 출구 또는 10번 출구, 도보 2분)

●일상의 소박한 여유, 불광천 수변공원

불광천은 90년대만 해도 비가 와야 물

이 흐르는 건천이었다. 음양동 일대 쓰레기장으로 활용돼 악취 때문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하천을 재정비하고 개울을 따라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조성하면서 지금은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야경은 증산역부터 개천을 따라 음양역까지 걸어가 코스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 1번 출구, 도보 1분)

●서울 시민이 사랑한 야경 명소, 남산공원

남산 자락의 산책길은 무척 다양하다. 요즘 부담없이 가볼만한 코스로는 북촌순환로의 황토길이다. 국공장인 석호정에서 시작하는데 구간이 길지 않아 부담이 없다. 신발과 양말을 벗어 신발장에 놓고 맨발로 걸으면 된다. 순환로 곳곳에 '포도 아일랜드'라는 이름의 전망대가 있어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중 N서울타워와 도심이 파노라마로 어우러지는 풍경을 보고 싶으면 '남산 서울타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올라온 길을 역으로 내려가다 만나는 포도 아일랜드가 가장 좋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동대입구역&장충동 버스 정류장서 02, 03, 05 순환버스 탑승)

●한강 조망 산책길 압권, 보타닉 공원

2018년 10월, 축구장 70개 크기로 조성한 공원형 식물원이다.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등 4개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식물원 구간인 주제원과 온실은 유료이고, 공원 구간인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공원 구간만 즐길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온실도 함께 돌아보는 것이 좋다. 해가 지면 256색 LED 조명이 다양한 빛깔로 온실 창문을 물들인다. 보타닉 공원에서 야경을 즐기

기 좋은 곳은 호수원이다. 호수가 산책길에 푸른색 조명이 있어 따뜻한 분위기가 난다. 길은 호수원과 습지원을 지나 한강을 조망하는 전망테크까지 이어진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3,4번 출구, 양천향교역 8번 출구, 도보 5분)

●41층 호텔 로비 야경 명소, 디큐브시티

전에는 1연탄공장이 있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오피스, 아파트, 백화점, 아트센터, 호텔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 자리잡았다. 높이 190m로 구로구 일대에서 가장 높다. 고층 대부분은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로 운영 중이다. 41층에 있는 호텔 로비에서 신도림과 구로부터 여의도 일대까지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덕분에 도심서 야경을 감상하는 숨은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롯데호텔제주 '얼리 디셈버' 판촉



롯데호텔제주(사진)는 28일부터 5일 동안 얼리버드 연말 패키지

'얼리 디셈버'를 진행한다. 디럭스 가든룸, 플레이토피아 'VR 체험존' 입장권 2매, 미니바 무료 이용 1회, 해운 스키밍 쿠폰 제공으로 구성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면 1박당 1만 원을 할인한다. 이밖에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등 부대시설 이용, 롯데몰 김포공항점 주차권, 발레파킹, 호텔 레스토랑 1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디럭스 테라스 오션룸 혹은 프리미어 오션룸을 이용하면 '풍차라운지' 이용 2인 혜택을 투숙 중 1회 받을 수 있다.

김재범 기자

필리핀 관광부, 신춘서 홍보 행사



필리핀 관광부는 25일부터 3일간 서울 신춘 연세로에서 'Feel the Phil' 행사(사진)를 진행한다. 필리핀 주요 관광지를 재현한 3D 포토존과 필리핀 전통 음식 푸드트럭 등을 만날 수 있다. 항공사, 여행사, 리조트 등 필리핀 관련 여행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할인행사와 특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부스에서 상담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상품 소지까지 선착순으로 백팩 혹은 여행용 캐리어를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내달 1일 오픈

스위스풍 물집...조식 딜리버리 제공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가 11월 1일 강원도 고성에서 문을 연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의 국내 13개 리조트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으로 객실 인테리어부터 리조트 배치까지 스위스 분위기를 만끽하도록 꾸몄다. 총 144실로 네 개 단지를 로잔, 바젤, 베른, 루체른 등 스위

스 지방을 붙여 구분했다. 객실 규모는 86㎡부터 119㎡까지 다양하다. 투숙객은 최소 5인부터 7인까지도 두 가족 이상 투숙할 수 있다.

객실 서비스로 강원도 리조트 중 최초로 '굿모닝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식을 직원들이 직접 객실로 가져오는 서비스다. 또한 객실마다 바비큐 파티를 즐기도록 야외 테라스를 설치했다. 액티비티 프

로그램으로는 화양사, 신선호, 천진천, 메타세콰이어 로드 등의 산책로와 숲속 힐링해먹존을 운영한다. 설악밸리는 이번 개관에 이어 2020년 3월1일 그랜드 오픈한다. 이후 패밀리 팜, 박물관과 하이디 마을, 스위스 스타일 정원과 캐슬 호텔&리조트 등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신진수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총지배인은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친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바쁜 일상이 활력소가 되는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위스 알프스 지방의 건물을 떠올리게 하는 미국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인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웰빙센터. 사진제공 | 켄싱턴호텔앤리조트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휴대용 무르팍엔

무르팍엔이 생각나~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질(젤라틴,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용 자석)이 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이 편하면 료노래가 절로 나온다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로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나이가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안이라든 많이 더 듣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 건 분명히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기쁘고 막연히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까요?

우선 나이가 어리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야 하고 노화방지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서남제주대학교병원과 주메이스트와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항콜라겐은 항콜라겐 주름을 유발하는 주름개선, 피부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도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콜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자리가 나게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평평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피부가 고약하면 캔시드 외출하고 싶어진다~

나이보다 젊어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귀하신 분들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세트: 장보고 항콜라겐 2개 + 항콜라겐 1개
*판매처: 서남제주대학교병원
*용량: 70g/개
*제조원: 주메이스트

남녀공용입니다
중년 남성에게도 너무 좋아요~

어떤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고약한 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더 쳐다보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항콜라겐 1600-2865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따씨의 놀라운 성능

휴대용

제품명: 허리따씨
제조/판매원: 솔린
재질: 길이: 대, 중, 소
두께: 5mm/ 무게: 210g
제품용도: 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징: 가볍고 반영구적
스틸레 기어
제조국: Made in Korea

名作 名品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생하는 허리따씨 발열밴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젤라틴,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씨1600-1047